

유혹과 오염의 서사 — 김유정의 「정조」론 —

이 경*

요약

이 글은, 김유정의 「정조」가 남성 간 여성 거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사실은 이를 비틀어내고 있다는 데 착안하여 여성인물의 주체적 궤적을 탐색한다. 게일 루빈의 여성거래와 크리스테바의 비체 개념을 비롯한 여성 주의적 접근법에 바탕하여 소설에 나타난 유혹과 몸 팔기 그리고 거래와 협상 과정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여성인물의 주체적 전략을 드러낸다. 남성지배의 구조 속에서 여성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협소하지만 비체되기는 이와 같은 구조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한다. 주인을 유혹하여 몸을 섞고 이를 빌미로 술집밀전을 마련해 행랑생활을 청산하는 행랑어멈의 궤적을 분석함으로써 비체-되기를 통해 여성거래의 사회적 맥락을 균열하는 여성인물의 잠재력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먼저, 여성인물이 구사하는 유혹과 피해의 이중전략을 통해 주체와 대상을 넘나들며 정조이데올로기와 여성거래를 비틀어내는 소설의 여성주의적 잠재력을 살펴본다. 유혹의 주체이든 피해자이든 이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점을 통해 여성 거래의 배후를 이루는 사회적 맥락이 균열되는 가능성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주인 of 피해의식을 빌미로 한 비체 되기를 통해 주인/행랑것의 경계를 교란하는 전략을 탐색한다. 주인을 피해의식에 처단할 수 있는 여성인물의 자원은 유혹이나 쾌락이 아니라 더러움, 추함 그리고 천한 신분으로 인한 전염성이며 신분의 경계와 체면을 오염시키는 동력은 오직 행

* 한국국제대학교 사회복지학과(교양학부) 교수

랑어멈만이 가질 수 있기에 비체 되기야말로 그녀가 지닌 자원이자 실력행사의 원천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유혹/피해의 이중전략과 비체 되기의 전략이 오염의 거래와 주인공력의 농담화로 수렴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오염을 담보로 한 거래과정에서 거래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여성인물의 위상을 드러내고 자신을 비체화한 주체를 조롱하는 주인공력의 농담화를 밝혀낸다. 여성거래를 균열하고 주인공력을 조롱하는 행랑어멈의 대응양식에서 여성인물을 민족의 은유 혹은 매매와 교환의 매개로만 그 의미를 한정해온 기존의 연구사를 넘어서는 여성인물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여성의 주도권, 유혹의 주체, 여성 거래, 오염의 자원화, 비체 되기, 주인공력의 농담화

목차

1. 들어가기
2. 유혹/피해의 이중전략
3. 주인의 피해의식과 비체 되기의 실력행사
4. 오염의 거래와 주인공력의 농담화
5. 마무리

1. 들어가기

『정조』는 행랑살이를 하는 내외가 주인을 유인/유혹하여 돈 이백원을 받아냄으로써 행랑생활을 청산하는 이야기로, “순박한 인간성, 원점회귀의 구성”¹⁾ 등으로 설명되는 김유정 소설세계의 한 예외를

1) 이외에도 뿌리 뽑힌 인간들의 빈궁한 생활상, 무기력한 남성과 생활력 강한 여성, 살기 위한 매춘 등의 예를 들고 있다. 이 세 가지는 『정조』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된다. 전신재, 『워은이 해설』,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 전집》, 개정증보

이룬다. 아내의 몸을 매개로 대가를 받아 생계를 도모하는 모티프는 유사하나, 돈 이원의 “둔갑술”과 “발복”을 꿈꾸는 도박 혹은 금점 등의 허황한 기대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장사 밀천을 마련하는 성공의 서사를 다루기 때문이다.

김유정 연구사의 목록에서 상대적으로 「정조」가 조명되지 못한 것²⁾은 이와 유관하다. 「정조」에서 유머와 현실고발의 입체적인 시각은 그대로 견지되나 긍정할 만한 인간상 혹은 윤리적인 지점을 찾아보기 어렵다³⁾는 것이 그 원인의 일단을 설명한다. “철부지 목가” 혹은 “인간에 대한 한없는 긍정과 생명존중”⁴⁾ “사랑이 불가능한 시대에 사랑의 현존을 증명하는 힘”⁵⁾ 등으로 축조되어온 연구사적 지평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우며 도시체험 소설들은 사건과 인물의 겉만을 따라가기에 급급하다⁶⁾는 최원식의 평가 또한 유사한 맥락을 갖는다. 목적으로서의 돈에 종속되는 도시빈민의 이야기로 수렴 가능할 만큼, “비천한 현실로부터 가장 고귀한 인간적 진실을 길어올

판, 도서출판 강, 2012, 17면.

- 2) 식민지 근대현실에 대한 고발과 비판이라는 의의와 소극적인 현실인식이라는 한계가 공존하며 해학과 향토성(송주현,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 인물 관계와 서사화 과정을 중심으로』, 김유정학회 제5회 학술세미나, 『김유정과의 만남 2014 가을』, 2014, 1면)에서부터 농민판 내적 독백을 실현한 모더니즘 서사기법에 이르는 분석(최원식, 『모더니즘 시대의 이야기꾼: 김유정의 재발견을 위하여』, 『민족문학사연구』, 제43권, 2010, 342-366면)이 가능할 만큼 연구사의 스펙트럼은 넓지만, 그럼에도 「정조」의 자리는 매우 협소하다.
- 3) 「정조」는 “부끄러움을 통해 스스로의 비인간성과 대면하고 성찰하는 주체”(이경, 『자본주의보다 먼저 온 실패의 예후와 대안적 윤리』, 『코기토』, 제73호, 2013, 519면)의 윤리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 자본주의의 대안 혹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시종하기 때문이다. 정연희는 이와 같은 윤리와의 단절이 가지는 의미를 윤리의 정치화로 설명한다. 정연희, 『김유정 소설의 실제의 윤리와 윤리의 정치화』,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0권, 2015, 516면.
- 4) 송주현, 위의 글, 2면.
- 5) 김예리, 『김유정 문학의 웃음과 사랑 - 김유정 문학에 나타난 죽음충동과 예로스』, 김유정학회 편, 『김유정의 문학산맥』, 소명출판, 2017, 61면.
- 6) 최원식, 위의 글, 364면.

리”⁷⁾기에 엄혹한 현실 속에서도 긍정성을 잃지 않는 김유정 소설의 일반적인 문법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글은 바로 그 성공의 서사에 주목함으로써 이를 이끄는 여성인물의 주체적 잠재력을 밝혀내고자 한다. 주인공외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행랑것”들의 거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지 않으며 무엇보다 유혹에서 협상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주도하는 여성인물의 궤적 또한 주체성의 확보라는 의의를 지닌다. 부분적이거나, 주인에 대한 승리를 이끄는 것이 여성인물이라는 점에서 여성인물의 주체성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소설은 성공의 배후에 있는 남성인물의 존재를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배후의 지시만으로 유혹과 협상이 성사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과 맥락에 대한 통제와 판단이 핵심이며 이를 실현하고 완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여성인물이기 때문이다. 팔고 팔리는 여성의 서사에 주목한 오늘날의 연구에는 이와 관련한 새로운 성취들이 축적되고 있는 중이다. 들병이에게서 “가부장적 질서를 교란하고 호주제를 무력화”함으로써 “일제의 통치정책이 품고 있는 항상적 균열을 반영”⁸⁾하는 의미를 읽거나 아내팔기 모티프에서 “30년대 부정적 현실에 대한 문학적 응전”⁹⁾을 탐색하며 윤리의 개인화와 윤리의 정치화를 읽어내는¹⁰⁾ 등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들에서 여성 인물들은 민족의 은유로 해석되거나 매매와 교환의 매개로만 의미가 한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상황에 대한 작중인물의 대응양식 및 가치판단 등은 연구대상에서 비껴나 있는 것이다.¹¹⁾

7) 최원식, 위의 글, 346면.

8) 배상미, 『1930년대 농촌사회와 들병이 -김유정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제51권, 2013, 460면.

9) 김미현, 『승고의 탈경계성 -김유정 소설의 “아내 팔기”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38권, 2012, 198면.

10) 정연희, 위의 글, 520면.

이에, 이 글은 유혹과 협상에 임하는 여성인물의 전략에 유의하며 여성인물의 주도권과 주체성을 밝혀내고자 한다. 여성의 주도권이라는 입장에서 상황에 대한 대응양식 및 맥락을 구성하는 능동성을 살펴봄으로써 당대의 구조화된 가난과 신분질서 그리고 남성지배에 반하는 여성인물의 동력을 떠내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게일루빈의 『여성 거래』와 크리스테바의 비체 개념을 비롯한 여성주의 이론에 기대어 불가능한 유혹과 협상을 가능하게 한 여성인물의 전략을 탐색한다. 게일 루빈은 결혼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여성이라는 레비스트로스의 명제에 기반하여 친족을 비롯한 강력한 남성연대를 구축하는 핵심이 여성거래로서의 결혼에 존재한다고 본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거래의 방식이다. 물론 남성도 거래되지만 남성으로서가 아니라 하인 혹은 어떤 다른 불운한 사회적 지위로서 거래되는 데 한정되며, 무엇보다 그들은 여성거래를 통해 친족체계를 형성하여 주체권력의 연대를 확보한다. 여성거래는 “두 집단의 남성들 사이에서 성립되며, 여성은 한 사람의 파트너가 아니라 교환대상의 하나로” 간주되고 여성은 이러한 교환의 성격을 바꿀 수 없다. 여성에게는 “자신을 양도할 수 있는 어떠한 입지도 없”기에 이런 남성지배의 호혜적 사회관계 안에서 여성이 주체가 될 여지는 거의 없게 된다.¹²⁾

11) 정현숙의 연구는 주인아씨에게 맞서는 행랑어멈에 주목하고 있으나 계층적 주종관계가 평등관계로 이행되는 세대변화 속에 이를 수렴시킨다. 정현숙, 『김유정 소설과 서울』, 김유정학회 편, 『김유정과의 산책』, 소명출판, 2014, 289-290면.

12) 게일 루빈, 신혜수·임옥희·조혜영 역, 『일탈 - 게일 루빈 선집』, 현실문화, 2015, 110-111면. 게일루빈은 여성거래를 통한 여성억압의 구조와 성 이데올로기들에 저항하는 정치적 행동으로 S/M, 성적 변이, 복장전환, 트랜스섹슈얼, 나아가 소아성애나 성매매와 같은 “일탈”행위들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성적 표현과 섹슈얼리티의 유토피아적 해방”(신혜수 외, 『옴진기 해설』, 게일루빈, 위의 책, 687면)을 꿈꾼다. 하지만, 이 글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정조』는 그러한 급진적 사유보다는 오히려 루빈이 제시한 성 위계질서의 가장 하위 계층

여성거래에서 여성은 거래의 대상이 되어 “성적인 준-객체 semi-objects”¹³⁾로 전락하며 견고한 남성동맹은 주체를 동질화하기 위하여 그 방해가 되는 여성들을 “오염되고 불순한 것, 공포스러운 비체로 간주하여”¹⁴⁾ 혐오의 대상으로 규정한다. 여성은 거래의 대상에서 비체로 이전되는 것이다. 남성권력이 여성을 타자화, 대상화하는 것은 비체화¹⁵⁾를 통해 작동하지만, 바로 이 때문에 여성이 주체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 비체는 주체권력의 기율을 흔들고 경계를 교란하기 때문에 단순한 혐오의 대상을 넘어 남성권력에 공포를 불러일으킨다. 비체의 액체성으로 인하여 비체는 주체가 그 어놓은 권력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거래에서 여성은 “그저 집 안에 머무는 하찮은 존재들”¹⁶⁾임을 무력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요구되지만, 여성은 스스로 그 ‘하찮은 존재들’임을 숨기지 않고 능동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비체화를 기반으로 형성된 남성동맹기율을 흔들고 경계를 교란하며 자신에 대한 혐오를 공포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남성권력에 순응하는 듯 하지만 이를 통해 남성주체에 공포를 야기하며 남성들이 거래한 사회적 지위를 조롱하면서 모욕을 가한다.¹⁷⁾ “비체 되기는 타자 배제에 기반하는 주체가 되지 않고도 여성성을 열등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부정하지 않고도 여성의 행위자성을 추동할 수 있는 존재방식이다.”¹⁸⁾라는 언급

에 해당하는 성매매(게일 루빈, 위의 책, 307면의 그림 참조)에 유사한 전락적 행위를 통하여 여성인물이 비체-되기의 전복성을 실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13) 게일 루빈, 위의 책, 112 『사회관계의 구체적 체계를 속에 있는 성적 접근, 가계(家系)의 지위, 혈통의 이름과 조상들, 권리, 그리고 사람들-남성들, 여성들, 아이들-을 교환』하는 것이다. 게일루빈, 위의 책, 113-4면

14) 이현재, 위의 책, 35면

15) 비체가 혐오되는 이유는 그것이 동일성, 체계 질서를 교란시키기 때문이다. 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들녘, 2016, 34-35면.

16) 게일 루빈, 위의 책, 111면.

17)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여이연, 2006, 280면.

또한 같은 맥락에서 비체 되기의 유머와 공포가 갖는 대응력을 설명한다.

이상의 접근법에 기대어, 『정조』에서 제시되는 여성인물의 주체적 궤적을 분석한다. 여성인물은 시대와 사회구조의 희생자¹⁹⁾이거나 남성 간 거래의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혹과 비체 되기의 방식으로 이와 대면하여 협상과 거래를 실현하는 주체인 동시에 여성거래를 균열하고 주인공력을 회화화하는 가능성을 가진 주체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하에서는 거래의 주체와 대상을 넘나드는 여성인물의 주도적 전략을 살펴본다.

2. 유혹/피해의 이중전략

행랑어머니 몸을 팔고 주인서방님이 돈을 내놓았지만 이들의 관계는 간단하지 않다. 여기에는 신분과 젠더, 유혹과 피해 등이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행랑어머니 유혹하였기에 주인은 가해자에 미치지 못하며 “잔지냄새”와 “때뽀”의 “징글징글한 기억”으로 충격되는 행랑어머니 또한 통상적인 유혹자의 면모와는 거리가 있다. 유혹의 주체인 여성이 정조상실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모순이지만, 행랑어머니 이 두 역할을 중첩시킴으로써 협상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이 점에서 행랑어머니의 주체적 가능성을 읽을 수 있다.

여성들에게 에워싸여 있는 주인의 상황을 참조한다면, 행랑어머니 주인을 유혹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그녀의 외양에 관한 소설의 묘사 또한 이와 같은 불가능성에 대한 강조에 다름 아니다. 따

18) 이현재, 위의 책, 37면

19) 최성윤, 『김유정 소설의 여성 인물과 ‘貞操’』,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3집, 2011, 278면.

라서, 유혹을 실현한 행랑어멈의 전략이 갖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그녀의 주도권²⁰⁾을 설명하는 단서가 된다.

(문지방 하나만 더 넘어서면 곱고 깨끗한 안해가있으려면
그걸 뭘보구?)

(...)그의 번처라는 자기말고도 수하동에 기생첩을 치가 하였고 또는 청진동에 쌀 나무만 대고 드나드는 여학생첩도 있는 것이다. 꽃같은 계집들이 이렇게 앞에 놓였으려면 무슨 까닭에 행랑어멈을 그랬는지 그속을 모르겠고 <287면>²¹⁾

(아 아! 내 뭘보구 그랬든가 (...)에잇 추해! 추해! 내 뭘보구? 술이다 술 분명히 술의 작용이었다)하고 또다시 애꿎은 술만 타하지 않을수 없다. <285면>

“뭘보구?” “무슨 까닭에”라는 주인내외의 말이 잘 보여주듯, 행랑어멈과의 관계는 난봉을 저지른 당사자는 물론, 그의 아내에게도 불가해하다. 난봉난 남편에 대한 아씨의 반응이 원망 혹은 질투가 아니라 어떻게 가능했는지라는 의혹으로 수렴되는 것은 이를 잘 설명한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전략이 필요하다. 바로 이 때문에 그녀의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유혹을 직무와 직결시킨 것이 유혹을 가능하게 한 일차적 요인으로 보인다. 자신의 일을 통해 사고와 전략을 익히는 노예²²⁾처럼, 행랑어멈의

20) 유혹과 여성주체의 관계에 관해서는 임옥희, 『젠더 감정 정치』, 여이연, 2016, 54면, 김경옥, 『이상 소설에 나타난 斷髮과 유혹자로서의 여성』, 『관악어문연구』, 제24호, 1999, 299-313면: 보드리야르, 배영달 역, 『유혹에 대하여』, 백의, 1996, 등 참조.

21) 이하 이 글에서의 인용은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 전집》, 도서출판 강, 2012에서 하였다(숫자는 그 면수를 의미함).

22) 노동을 통한 여성의 주체화에 관해서는 임옥희, 위의 책, 141-143면 참조.

유혹은 일을 하는 가운데 주인의 귀가시간, 술과 여성편력으로 인한 취약성 등을 껴매 뒀으로써 실현된 측면이 크다. 대문에서 술 취한 주인의 시중을 드는 일을 통해 유혹을 도모한 것 자체가 승산을 담보한다. “문지방 하나만 넘어스면 곱고 깨끗한 아내가 있으려면”, 바로 그 문지방 앞에서 서방님이 행랑방으로 유인된 것은 이 때문이다. 주인과 내방객의 시중을 드는 장소인 대문은 그녀가 활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기에, 자신의 주도하에 주인의 행로를 바꾸는 일이 용이한 것이다.

“분명히 술의 작용이었다”는 자신의 의지로 이루어진 난봉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그에게 작용한 것은 단순히 술만이 아니며 주인이 술에 취한 상태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야말로 뚜렷이 효력을 발휘하는 작용의 주체라 할 수 있다.

과연 새벽녘 집에 다다랐을 때쯤 하여서는 하늘땅이 움직기도록 술이 잠뵈 올랐다(...) 그러나 대문을 열어주고 눈을 부비고 섰는 어멈더러 “왔나?” 하다가

“안즉 안왔어요 아마 며칠 묵어서 올무양인가 봐요”

그제야 안심하고 그 허리를 콕 부둥켜안고 행랑방으로 들어간걸 보면 전혀 정신이 없든것도 아니었다. 왜냐면 아츨나절 아범이 들어와 저 살든 고향에 좀 다녀오겠다고 인사를하고 나간 것을 정말 취한 사람이면 생각해냈을 리 있겠는가. (...) 허나 년의 행실이 더 고약했는지도 모른다. 전일부터 맥없이 빙글빙글 웃으며 눈을 찌긔이 꼬리를 치든 것은 그만두고라도 <285-286면>

자기가 대문을 들어 스자 마자 술취한 사람을 되는데로 잡아끌고서 행랑방으로 드러간것도 역 그년이아니었든가 <286-287면>

행랑아범이 고향에 다녀오겠다고 알린 것과 “그 전일부터 웃으며 눈을 찌긔이 꼬리를 치든” 어멈의 수작은 유혹을 성사시키기 위한

분업이자 예비작업이다. 행랑아범의 부재와 행랑어멈의 추파는 술과 여자에 취약한 주인에게 보내는 일종의 신호로 기능하며, 아범의 부재를 확인한 후 대문에서 “허리를 꼭 부둥켜안고 행낭방으로 들어간” 주인의 반응은 이들의 신호를 수신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들이 보낸 메시지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작용한 셈이다. 이 점에서 서방님은 권력을 가진 주체이기보다는 행랑내외의 메시지를 수용하는 대상에 가깝다. 그는 술과 유혹의 전략이 작용하는 처소이자 대상화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불가능한 유혹이 성사된 것은 자신의 일을 통해 주색에 자신을 양도한 주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포착해서 기회로 삼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주인과의 관계에 관한 행랑어멈의 주도권적 입지로 이어진다.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것은 극단을 왕복하는 담론방식이다. 유혹의 주체에서 난봉의 피해자로 재빨리 이동하는 그녀의 태도는 주도권의 실행행사에 다름아니다.

안에서 이 눈치를 채이고 안해가 기급을 하여 뛰어나와서
그를 끌어낼때 어멈은 뭐랬는가 안해보담도 더 분한듯이 세근
거리고 서서는 그리고 눈을 사박스리 홉뜨고는

“행낭어멈은 일 시키자는 행낭어멈이지 이러래는거예요?”

이렇게 바루 호령하지 않았든가 뿐만아니라 고대자기를 보
면 괜스리 좋아서 죽겠다든 년이 판통같이

“아범이 없걸래 망정이지 이걸 아범이 안다면 그냥 안있어
요 없는 사람이라구 너머 없인너기지 마세요”

물론 이것이 켜 아씨에게 대하여 저의 면목을 세울려는 뜻
도 되려니와 하여튼 년도 무던히 앙큼스러운 계집이었다.

<286면>

“서방님만 빼면 괜스리 좋아요”라고 유혹한 것과 달리, 아씨 앞에서 그녀는 곧바로 난봉의 피해자로 이동한다. “없이 산다” 업신여

김을 당한 것처럼 자신을 피해자화하는데, 이와 같은 신속한 이동은 상황과 맥락을 주도하는 주체적 입지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유혹의 주체가 정조를 상실한 피해자가 되는 모순된 역할의 중첩은 기실 그녀의 목적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가진다. 그녀가 겨냥하는 것은 행랑생활을 청산할 장사밑천이기에 양자는 모두 협상의 주도권을 위한 역할극에 지나지 않는다. 그녀가 주인을 유혹하였기에, 정조를 잃어버리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지만, 굳이 피해자를 가장한 것은 이 입장이 거래에 유리하기 때문이다.²³⁾ “아범이 알면 가만 안 있어요”라는 말은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위하여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정조를 인용하여 상실을 주장한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정조개념으로 맞서야만 그녀는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되어야만 대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조를 잃었기에 피해자가 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되기 위해 정조관념을 주인계급으로부터 빌려온 것이다.

소설의 제목이 가부장적 윤리의 핵심가치인 「정조」인 것은 이로써 설명가능하다. 정조는 가진 것 없는 비천한 여성이 주인권력과 맞서는 유효한 장치이다. 피해자를 가장하여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은 주인계급의 이데올로기인 정조를 자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은 ‘억압되거나 저항하거나’라는 이분법적 선택지 안에서가 아니라 대결을 위한 도구로 정조를 차용하는 새로운 선택으로 읽을 수 있다. 이 점에서 행랑어멈의 대응방식은 이득을 위한 일탈이라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정조관념의 희화화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는 도구로서의 정조관념을 비틀어내고 정조를 중시하는 신분이 따로 있다는 전제 자체를 탈맥락화하기 때문이다. 남성지배권력의 도구를 자신의 것으로

23) 이는 「산골나그네」에 대하여 “실현불가능한 도덕을 비판”하는 “악역의 권리”라고 분석한 것과 상통한다. 김미현, 위의 글, 206면.

활용함으로써 원래의 목적을 무력화한다는 점에서 행랑어멈의 태도는 일정 정도 여성적 의의를 지닌다. 더불어, 주인을 유혹의 대상으로 삼든 정조를 유린한 자로 못박든 간에 이를 결정하는 것이 행랑어멈이라는 사실은 상황을 통제하고 이에 따라 유연하게 자신의 입지를 구성하는 그녀의 주체성과 주도권을 증명한다.

이제 유혹과 유인의 서사에 숨은 비체의 동력을 살펴본다.

3. 주인의 피해의식과 비체 되기의 실행행사

근대의 물결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주종의 관계가 엄연하던 일제강점기하의 도시공간에서 피해자 역할극만으로는 목적을 이룰 수 없다. 주인의 권력에 내재하는 약점과 틈새를 파고드는 전략이 필요하며 여기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주인의 피해의식을 활용한 비체-되기이다.²⁴⁾

행랑어멈의 서사는 유혹에서 시작되지만 유혹의 서사와는 거리가 있다. 그녀에게 힘이 실리기 시작한 것은 유혹이 담보하는 쾌락이 아니라 오염을 과시하는 비체 되기를 통해서이다. 주인을 유혹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주색에 취약한 주인의 약점을 활용한 유인에 가까우며 관계 후에는 더러움과 추함 그리고 천한 신분을 담보로 주인을 압박하기 때문이다. 소설에서 주인의 피해의식은 반복적으로 제시되

24) 일반적으로 비체의 개념에는 오염이 결합되며, 오염을 과시하는 것은 비체-되기의 중요한 전술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양자를 같이 분석하는 것이 보다 종합적일 수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주인과 행랑어멈사이에 발생한 행위를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주인의 난봉이 아니라 신분의 경계를 넘어서는 일종의 “성적 일탈”-게일루빈의 “일탈”에 상당하는 의미로-로 규정하는 행랑어멈의 전략적 행위를 강조하기 위하여 비체-되기의 과정(제3장)과, 거래와 주인권력의 농담화를 위한 행랑어멈의 능동적·적극적 전략으로서의 오염(제4장)을 별도의 장으로 분리하여 설명한다.

는데 행랑어멈과의 관계로 인한 주인의 피해의식은 비체로 인한 공포에 유비된다. 이는 주체권력이 밀어낸 타자가 그들의 동일성과 경계를 교란시키는 것에 대한 공포이다. “특정 대상이 자기를 오염시킬 수 있다고 믿는 순간 혐오는 그 집단에 대한 배제와 폭력으로”²⁵⁾ 나아가지만, 소설에서 제시되는 주인/행랑어멈의 관계는 주권권이 행사하는 배제와 폭력의 일방향적 작용을 넘어선다. 행랑어멈이 체현하는 비체 되기는 오히려 주인을 피해의식에 처단하기 때문이다. 이는 경계를 교란시키는 비체가 가하는 반작용의 가능성을 함축한다.

(아 아! 내 뭘보구 그랬든가 검붉은 그 얼골 푸리딩딩하고
꺼칠한 그 입살 그건 그렇다하고 짹짹한 찌지냄새가 획 끼치는
그리고 생후 목물한번도 못해봤을듯 싶은 때쯤 낀 그 뭉뚱
아리는? 예잇 추해! 추해!) <285면>

이렇게 생각해보니 곧 창자가 뒤집힐 듯이 속이 아니곱다.

그러나 이미 옆친 물이니 주어 답을수도없는노릇이고 어찌
볼라야 어찌볼업두조차 나질 않는다. <287면>

(그것도 외양이나 잘났음 몰라두 그 상파대기를 뭘보구? 예!
추해!) 하고 아씨는 자기가 치른것같이 메시꼬운 생각이 안날
수 없었다. <287-288면>

“만일 친구들에게 이런걸 발설한다면 내가 이 낮을들고 문
밖엘 못나슬터이니 당신이 잘 생각해서 해주” <287면>

그것도 그럴것이 서방님은 이걸로 말미아마 사날동안이나
밖으로 낮을 들고 나오지 못하였다. 서방님은 머리에 떠오르는
그 징글징글한 기억을 어떻게 털어버릴 도리가 없는것이다.
(...) 만일에 행랑어멈이 미다지 밖에서 엿듣고 섰다가 이기맥
을 눈치 챌다면 그는 더욱 우좌스러운 저의 몸을 발견함에 틀
림 없을것이다. <284면>

25) 이현재, 위의 책, 14면.

주인에게 행랑어멈과의 관계는 “징글징글한 기억”과 “우좌스러운 저의 꿈”의 발견으로 충격된다. 여기서 주인이 느끼는 불쾌감은 전염에 대한 피해의식에 기인한다. 특정 사회적 질서와 동일성을 강화하려는 자들에게 경계를 위협하는 비체는 공포를 넘어 혐오의 대상이 된다.²⁶⁾ 주인의 반응은 단순히 추하고 비위생적인 것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전염에 대한 두려움과 이로 인한 혐오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찝찝한 잔지냄새가 핵 끼치는” “생후 목물한번도 못해봤을 듯 싶은 때뽀 낀 그 몸똥아리” 등 후각과 시각을 동원한 행랑어멈에 관한 묘사는 전염에 대한 피해의식을 실감나게 노정한다.

“친구들에게 이런 걸 발설하면 내가 이 낮을들고 문밖엘 못나슬터이니” 등 주인의 언설은 행랑어멈과의 관계가 상기시키는 오염과 이로 인한 피해의식을 잘 보여준다. “창자가 뒤집어질 듯 아니꼽다”는 서방님과 “메시꼬운 생각이 안날 수” 없다는 주인아씨의 반응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다. 이들은 한 몸처럼 메시꼬워하고 “추해”라는 한 목소리로 대응하는데 이는 피해의식이 육체적 반응으로 드러난 것이다. 특히, 행랑어멈과의 관계에 관해, 서방님이 아니라 “자기가 치른 것 같이 메시꼬운 생각”이 든다는 아씨의 반응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방님의 난봉으로 인한 괴로움이 아니라 오염으로 인해 신분의 경계를 침범당했다는 피해의식이 앞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행랑어멈과의 관계가 “사회의 면역체계를 허물고 위협하고 불안하게 전파”되는 “전염병”²⁷⁾으로 충격되는 이와 같은 현상은 주인/행랑것, 위생/비위생이라는 신분과 생활의 경계가 흔들리는 것에 대한 피해의식이 육체적 반응으로 드러난 것이다. “사날 동안이나 낮을 들고” 바깥출입을 못하는 주인의 태도는 이를 잘 드러낸다.

고체화되지 않고 규정성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이와 같은 피해의

26) 이현재, 위의 책, 35면.

27) 임옥희, 위의 책, 118면.

식은 공포로 나아가는데, 주인의 꿈속에 나타나는 귀신은 공포의 은유이다.

서방님은 진저리를 치며 벌떡 일어나 앉어서는 권연에 불을 붙인다. 등줄기가 선뜩하며 식은 땀이 혼근히 내솟았다. (...) 행랑어멈의 음성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사지가 졸아드는 듯 하였다. <285면>

역정은 역정이로되 그나마 행랑방에 드릴까봐 겁을 집어먹은 가는 소리로 큰소리의 행세를 할라니까 서방님은 자기속만 부적부적 탈뿐이었다. <290면>

굽신굽신하는 서방놈이 더능글차고 숭악한것이 보기조차 두려웠다. <290-291면>

(...)감은 눈속으로 온갖 잡귀가 다아 나타난다. (...)사자귀신(...) 여호귀신 그중의 어떤것은 한짝 눈깔이 물켜졌건만 그래도 좋다고 아양을 부리며 “아이 서방님!” 하고 달겨들면 이번에는 다리 펼없는 오뚜기귀신이 조쪽에 울렁이 앉아서 “요 녀석!”하고 눈을 똑바루 뜬다. <285면>

서방님은 생각다못하여 하릴없이 궁한 음성으로 아씨를 녀죽이 도루 불러드렸다. (...) 속 썩는 한숨을 위도르고는, “(...)허니 당신이 날 살리는심 치고 (...)” <287면>

“진저리치며” “겁을 집어먹은 가는 소리” “보기조차 두려웠다”에 나타나듯 행랑어멈은 주인을 공포에 처단하는 존재이다. 주인의 공포가 귀신의 표상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러 가지 귀신을 손으로 털어가며” 신음하거나 “감은 눈 속으로 온갖 잡귀가 다 나타난다” 등의 언술은 주인이 사로잡힌 피해의식과 공포를 잘 드러낸다. “날 살리는심치고”라는 주인의 언술은 신분이 갖는 체면과 특권의식이 오염되고 침범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준다. 주인의 권력과 신분이라는 경계를 무너뜨리는 전염성이야말로 삶과 죽음을 가를 만큼 강한 힘을 가진 공포의 중핵이라 할 수 있다. 전

염의 위험성을 내포하는 행랑어멈의 현존은 그 자체로 비체 되기의 동력을 확보하며 이는 곧 그들이 가진 특권의 경계를 허물어내는 침범에 다름아닌 것이다.

신분의 경계와 체면을 뒤흔드는 오염과 전염성은 그들의 피해의식을 구성하는 주요목적이다. 이 점에서 행랑어멈의 힘은 비체 되기에 나온다 할 수 있다. 그녀의 추함과 더러움 냄새 등은 이미 그녀의 존재를 감각적으로 과시하는 효과를 낳는다. 주인의 신분과 체면을 위협하는 전염성이야말로 대체 불가능한 그녀의 자원이자 거래의 주종목인 셈이다. 이와 같은 힘은 오직 추하고 비천한 행랑어멈만이 가질 수 있다. “문지방만 열면 기다리고 있는 곱고 깨끗한” 아씨, “수하동에 기생첩, 청진동에 쌀 나무만 대고 드나드는 여학생첩” 등 “꽃같은 계집들”이 결코 대체할 수 없는 행랑어멈의 고유한 영역이다.²⁸⁾ “징글징글한 기억”만으로도 전염의 가능성을 가지며 “음성만 들어도 몸서리를 치며 사지가 좋아드는 듯”한 경지는 천하의 “행랑것”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염을 재현한 비체 되기에 말로 그녀가 협상의 주도권을 쥐 수 있는 원천이자 자원이라 할 수 있다. 그녀가 정조 상실로 인한 피해를 위장했다면, 비체 되기는 주인을 피해의식으로 가득찬 약자로 만든다. 비체 되기로서 자신을 비

28) 오염에 대한 이와 같은 피해의식은 카스트 사회에서의 접촉에 대한 반응과 흡사하다. 카스트와 같은 경직된 신분제사회에서는 자신보다 하위 신분의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오염(stigma)으로 받아들인다. “다른 사람의 다르마(Darma: 카스트 혹은 성장단계에 따라 주어지는 의무와 규범체계)를 수행하면서 잘 사는 것은 비굴한 일이다.”라는 말은 다르마가 집단간의 경계를 유지하는 금기임을 잘 보여준다. 박정석, 『남인도의 불가촉천민에 관하여』, 『인도연구』 제4권, 1999, 81-114면 특히 88면 참조. 상위신분은 그 내적 규율에 부합하여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만 접촉한다. 『정조』에서 혼외정사 자체는 금기가 아니다. 다만, “곱고 깨끗한”, “기생”, “여학생” 등은 “꽃같은” 존재라는 속성이 존재할 때에야 그러하다. 그 조건하에서 비로소 주인은 자기가 속한 신분의 규율을 범하지 않은 채 그 일원으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행랑어멈의 태도는 이 금기를 정면에서 위반하여 주인이 속한 신분 전체의 품위와 그 존엄기반을 손상시키는 오염행위가 된다.

체화시킨 주인의 권력을 뒤흔들어 놓은 것이다.

주인의 피해의식을 겨냥한 비체 되기는 오염의 거래로 귀결된다. 행랑어멈의 존재가 현시하는 오염은 그들의 일상에서 제거되어야 하며 즉각적인 거래로서 해소되어야 하기에 주인내외의 선택지는 매우 협소하다. 행랑어멈이 주도하는 거래의 성공은 유혹이라는 시작지점을 오염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가능하다. 유혹/피해를 중첩시킴으로써 주체/대상의 젠더문법을 균열하고 비체되기를 통해 주인/“행랑것”의 경계를 교란시키는 행랑어멈의 궤적은 오염을 빌미로 여성 거래를 비틀고 주인권력을 농담화하는 것으로 수렴된다.

4. 오염의 거래와 주인권력의 농담화

여성 거래에서 여성을 주고 받는 주체 역할을 하는 것은 남성들이다. 남성들이 주체가 되어 부, 권력, 동맹 등의 대가를 교환²⁹⁾ 하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매개적 대상으로 전락하지만, 『정조』는 이와 같은 거래의 주체/대상 관계를 뒤흔든다. 거래주체와 대리인의 경계가 행랑어멈을 통해 교란되고 있는 것이다.

주인에게서 고뿌술집할 밑천 이백원을 얻어내는 거래³⁰⁾를 이끌어내는 핵심동력은 오염이다. 오염을 효과적으로 전시하는 주체는 행랑어멈이며 마침내 서방님의 입에서 돈을 쥐서 내보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오염으로 인한 공포의 효과라 할 수 있다.

“(…) 그걸 조용히 불러서 돈십원이나 주어서 나가게하도록

29) 게일 루빈, 위의 책, 140면 이하.

30) 김미현은 이를 부정적 현실에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이행중심의 숭고”로 설명한다. 위의 글, 204면.

해보우” <287면>

(...)어머니 부랴게들어오드니 그돈을 도루 내어놓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못떠나겠어요 어떻게 몸이나 풀구 한 뒤달 지나야 움직일게 아냐요? 이몸으로 어떻게 이사를 해요?”하고 또라지게 탄청을 부리는데는 아씨는 고만 가슴이 다시 달롱하였다. <290면>

애초에 10원 정도로 해결하려 한 주인의 제안을 차단하고 단가를 스무 배나 올린 것은 행랑어머이다. 행랑어머이 오염을 상기시키는 한편 오염을 효과적으로 전시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배후로 행랑아범이 지목되지만 오염을 현시하고 이를 거래하는 현장의 주도권은 어디까지나 그녀에게 있다. “이 몸으로 어떻게 이사를 해요”라며 서방님이 제안한 “돈 십원”을 도로 내놓는 것은 주인내외의 약점을 건드려 값을 올리려는 의도이다. “이 몸”이라는 언술로써 그녀는 협상의 우세를 점한다. 그녀와의 관계를 살짝 상기시키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는 주인의 입장을 겨냥한 것이다. 그녀가 행랑살이를 청산할만한 통 큰 거래에 성공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오염의 효과이다. 쾌락이 아니라 오염의 값을 매긴 것이다. 이 점에서 그녀를 낙인찍고 있는 오염이 쾌락보다 대가성이 훨씬 높다 할 수 있다. “고뿌술집 할테니깐 한 이백원 되겠지요 더는 해 뵈라게요”라는 그녀의 말은 주인을 상대로 한 행랑어머의 작업이 완료되었음을 확정하는 언술이다.

이와 같은 거래의 탁월함은 주인권력과 의 협상을 위해 뿌리 뽑힌 하층민이라는 계층과 조건을 자원화한 데 있다. 신분이 천하고 외모가 추할 뿐 아니라 비위생적이기까지 한 그녀와의 관계야말로 주인이 인정하기 싫은 과오이자 오염이라는 사실을 빌미로 거래를 성사시킨 것이다. 비체-되기가 환기하는 강력한 무기인 오염을 심분 활용한 그녀의 전략은 권력이 곧 약점의 이면일 수 있음을 잘 보여준

다.

이 점에서 그녀가 겨냥하는 것이 단순히 돈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것은 행랑생활을 청산할 밑천을 마련하는 일인 동시에 주인에 대한 그녀의 주도권을 완료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주인권력의 농담화와 직결된다. 유혹의 주체와 피해의 대상이라는 위치를 선택적으로 넘나들고 주인의 피해의식을 빌미로 오염을 거래하는 행랑어멈의 궤적은 주인권력의 대상화와 농담화로 수렴된다.

저도 모욕이나 당한듯이 아씨 붉지않게 큰소리로 대들었다.- <289면>

“늬놈의 애라니요? 그렇게 막 말씀할게 아니야요. 애가 커서 이답에 데련님이 될지 서방님이 될지 사람의 일을 누가 알아요?”하고 저도 모욕이나 당한 듯이 아씨 붉지 않게 큰소리로 대들었다. <289면>

“자네 또 행랑사리로 가나?” 하고 물으니까

“전밤낮 행랑살이만 하는줄 아세요?”하고 그전 붙어 놀러왔던 그 아씨에게 주짜를 뽑는것이다.

“그럼 삭을세루?”

“(…) 장사하러 가는데요!” 하고 나도 인제 너만 하단 듯이 비웃는 눈치이다가

“장사라니 미천이 있어야 하지 않나?”

“고뿌술집 할테니까 한 이백원이면 되겠지요 더는해 뭘하세요?” 하고 네보란듯 토심스리 내뱉고 는 구르마의 뒤를따아 골목밖으로 나아간다. <291-292면>

“(…)권을 손아귀에 넣고 휘둘르라는 이따위 행랑것두 잇단 말이유?” <284면>

이렇게 생각하면 아씨는 두 년놈에게 쥐키어 그농간에 노는 것이 절통하야 <289면>

주인아씨에 대한 행랑어멈의 태도를 “너만 하단 듯이”, “네 보란

듯이”, “안해보다 더 분한 듯이” 등으로 묘사한 것은 다중시점³¹⁾의 서술을 통해 여러 시각을 반영하는 한편, 주인공력 혹은 신분의 상대화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서술은 모두 주인공력/“행랑것”의 경계를 흐드는 공통점을 지닌다.

“애번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요? 아씨는 홀몸이라도 일 안하지 않아요?” “데련님이 될지 서방님이 될지 사람의 일을 누가 알아요?”는 행랑어머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언술이다. 애번 사람/홀몸, 서방님과 데련님/늙은의 자식을 나란히 병치한 것은 그녀 자신과 아씨를 동등한 자리에 위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아씨 밥지 않게” 큰소리로 대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권력의 상대화에 대한 인식을 전제로 하고 이는 “그전 붙어 놀러왔던 그 아씨에게 주짜를 뺏”거나 “애 뱃디는 자세로 며칠식 그대로 자빠져서 내다 주는 밥이나 먹고 누웠을 그런배짱” 등에 나타나는 주인내외의 권력에 대한 반작용과 연동되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주인공력은 흔들리는 것이다. “주인을 손에 넣고 휘두르려는 행랑것” 혹은 “두 년놈에게 쥐키어 그 농간에 노는 것이 절통”이라는 아씨의 반응은 자신들의 지위에 대한 불안울 잘 보여주며 이는 권력의 농담화로 나아간다.

주인은 유혹을 당한 대상에서 가해자로, 피해의식에 가득찬 약자를 거쳐 궁극에는 돈을 갈취당한 피해자로 입지가 바뀌어가는데, 이와 같은 주인의 위치이동이 행랑어머의 주도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은 권력의 농담화를 방증한다. 권력을 가진 주인이 난봉을 ‘당한’ 사실을 발설하지 못한 채 가해자의 이름으로 상대에게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애초의 난봉에서부터 돈 이백원을 내놓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서방님은 대상화된 존재에 가깝지만,

31) 이는 여러 작중인물을 초점화한 다중적 시점으로도 설명될 수 있다. 최병우, 「김유정 소설의 다중적 시점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3호, 2004, 29-45면.

그는 자신의 처지를 발설하지 못한다. 행랑어머미가 피해자 역할을 선점한 탓이기도 하지만, 그가 난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더욱 체면이 깎이는 일이기 때문이다. 가해자라는 위치에 처단된 피해자라는 점에서 주인은 이중으로 피해를 보는 셈이다. 오염으로 인한 피해의식에 시달리면서도 가해자라는 이름으로 거금의 술집밀전을 내놓는 가운데 아씨는 눈물을, 서방님은 “속 썩는” 신음소리를 삼켜야 하는 결과는 권력의 농담화에 다름 아니다. 가짜 피해자인 행랑어머미가 주인내외를 진짜 피해자로 만들어버린 셈이다. 그녀에게 유혹, 유인당했음에도 가해자의 명목으로 돈을 내놓는 주인은 그 자체로 이미 농담화의 대상이며 주인아씨에 대한 태도 또한 권력을 상대화함으로써 주인권력을 비틀어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³²⁾

이들의 교환관계는 주인내외가 가진 권력의 농담화를 넘어 남성 권력 자체를 농담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소설에서 남성인물들은 교환과 거래를 주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이를 잘 알 수 있다.³³⁾

(…)막별이를 한다는 그 남편놈이더 승악할는지 모른다. 이년의 소견으로는 도저히 애 뱃다는 자세로 며칠씩 그대로 자빠져서 내다 주는 밥이나 먹고 누었을 그런배짱이 못될것이다.
<288면>

32) 이 점에서 주인이 200원을 건네는 것은 자신의 이기적 계산에 기초한 것이라는 점에서 「숫」이나 「가을」, 「애기」 등에서 나타나는 교환의 구조와 유사하다. 하지만 “부끄러움을 통해 인간은 스스로의 비인간성과 대면하고 성찰하는 주체로 이동”하는 후자와는 달리 「정조」에서 주인의 거래는 명시적인 서사로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불가능한 교환’의 윤리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 이에 관하여는 이경, 위의 글, 519면 참조.

3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균열은 어디까지나 가정 안에서 시종한다는 한계는 지적될 필요가 있다. 이는 “가부장제의 편익”(신제원, 위의 글, 159면), “아내를 파는 비윤리”에도 부부의 사랑은 지켜진다는 「가을」에 대한 지적과도 맥을 같이 한다. 송주현, 위의 글, 5면. 김승중 역시 마찬가지로 입장이다. 김승중, “김유정 소설의 ‘열린 결말’과 이중적 아이러니,” 김유정학회 편, 김유정과의 산책, 165-192면, 171면.

이년이 필연코 행랑방에 나갔다가 서방놈의 훈수를 듣고 들어 과서 이러는것이 분명하였다. <290면>

주인아씨에 따르면, 행랑아범은 유혹과 거래를 지시하는 주체이며 행랑어멈은 이를 실현하는 매개에 지나지 않지만,³⁴⁾ 행랑아범의 지시가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 념새가 진동하는 추한 외양의 행랑어멈이 주인을 유혹하고 그와의 협상과 거래를 완료하는 전 과정은 배후의 지시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상황과 맥락에 대한 통제와 관장이 핵심이며 이를 실현하고 완료하는 것은 그가 아니라 행랑어멈인 것이다. 행랑아범은 어멈의 배후로 가정될 뿐이기에 현실의 동력을 갖지 못하며 돈과 권력을 가진 주인 역시 오염에의 공포로 인해 아씨의 뒤에 숨어 있기에 서사의 어떤 계기도 촉발하지 못한다. 행랑아범은 배후로 짐작될 뿐이고 서방님은 이불 속에 있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제시된다는 것은, 이 사건에 관한 한 두 사람의 태도가 협상의 전면에 나서지 않고 회피하는 것으로 일관할 뿐임을 알려준다. 돈을 지불하는 주인이든 이를 배후에서 조종한다고 간주되는 행랑아범이든 이들은 거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34) 『정조』의 행랑아범은 아내의 뒤에 숨어서 장사밑천으로 쓸 몸값 흥정을 한다. 최성윤, 위의 글, 275면. 이는 『소나기』의 춘호를 “타자를 제 안으로 흡수하려는 전체주의적 식민지배 원리를 체화한 인물”로 규정짓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갖는다. 차희정,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한탕주의 욕망의 실제 - 『소낙비』, 『금따는 콩밭』, 『만무방』을 중심으로』, 김유정학회편, 『김유정의 문학산맥』, 소명, 2017, 171면. 주인이나 아씨가 행랑아범의 존재를 가정하는 것은 이처럼 남성들이 주체가 되는 여성 거래의 사회적 맥락에 충실하기 때문이다. 주인-행랑아범이 거래의 주체(principal)로 상정되고 아씨-행랑어멈은 그 대리인(agent)으로 움직이는 듯 보인다. 하지만, 『정조』에서 행랑아범은 짐작 속의 배후로만 존재하며 정작 거래의 당사자로서 발화하는 주체는 행랑어멈이다. 장사 밑천 200원으로 귀결되는 부등가교환이 잘 보여주듯 이 거래는 남성이 주체로 자리하는 통상적인 거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바로 이 점에서 행랑어멈은 여성 거래의 틀을 흔드는 비체의 역할에 충실하다.

따라서 「정조」의 거래는 남성 간 여성거래가 아니다. 주인과 남편 사이에 자리하는 매개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주도권을 쥐 것은 행랑어멈이다. 그녀는 교환되는 대상이 아니라 오염을 빌미로 주인과의 협상을 견인하는 주체이며 바로 그 때문에 교환주체로서의 남성은 농담화된다. 거래와 협상에 관한 행랑어멈의 주도권이 부각됨으로써 주인이라는 신분 혹은 남성이라는 권위는 희화화된다. 유혹당하거나 오염의 공포에 처단됨으로써 교환주체로서의 입지를 잃은 주인권력은 농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5. 마무리

이 글은, 남성 간 여성 거래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남성은 주체가 아니며 여성은 교환대상이 아니라는 데 주목하여 김유정의 「정조」에 나타난 여성인물의 주체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제일 루빈의 여성거래와 크리스테바의 비체 개념에 바탕하여 주인을 유혹하여 몸을 섞고 이를 빌미로 행랑생활을 청산하는 행랑어멈의 궤적을 분석한 결과, 비체-되기를 통해 여성거래의 사회적 맥락을 균열하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혹과 오염의 거래라는 관점에서 소설에 접근함으로써 여성거래를 비틀고 남성권력을 농담화하는 여성인물의 주체적 전략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정조」에 대한 연구가 간과되거나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어 왔던 연구사적 결여를 보완할 수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으면 다음과 같다.

먼저, 유혹과 피해의 이중전략을 통해 여성거래를 균열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유혹과 피해는 충돌하는 개념이지만 이 두 역할을

중첩시키는 여성인물의 전략에서 주도권을 가진 주체의 면모를 발견하였고 유혹이든 피해든 간에 이를 결정하는 것은 여성이라는 점을 통해 여성을 거래하는 사회적 맥락이 균열되는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 나아가 억압과 저항의 이분법적 선택지 밖에서 정조이데올로기를 비틀어내는 가능성 또한 간취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주인의 피해의식을 빌미로 한 비체 되기의 동력을 살펴 보았다. 행랑어멈과의 관계가 주인을 피해의식에 처단하는 과정을 통해 비체 되기로 인한 경계 교란의 반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술과 여자에 취약한 주인의 약점을 활용하여 그를 유혹하였지만 사실상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유혹이 담보하는 쾌락이 아니라 비체 되기를 통한 오염의 과시임을 알 수 있었다. 신분의 경계와 체면을 뒤흔드는 비체-되기의 동력은 오직 행랑어멈만이 가질 수 있기에 오염이야말로 그녀가 지닌 주도권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염의 자원화가 실거래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거래주체로서 여성인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것이 주인권력과 남성권력의 농담화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더러움, 추함 그리고 천한 신분을 담보로 거래를 유도하는 행랑어멈의 궤적에서 주인/행랑것의 서열을 뒤흔들고 주인을 피해자로 만드는 행랑어멈의 주도권적 입지를 확인하였으며 여성은 남성주체들 간에 이루어지는 교환과 거래의 매개가 아니라 주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써 지배권력을 농담으로 만들어버리는 여성인물의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었다. 유혹보다 단가가 센 오염을 통해 유혹서사 자체가 패러디되는 효과 또한 담보할 수 있었다.

물론 『정조』는 주인권력 및 남성지배권력을 극복하거나 다른 전망으로 나아가는 여성주의적 윤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여성거래를 비틀어내고 정조관념을 희화화하며 남성권력을 농담화하는 여성의 주도권과 주체성의 확보는 간과할 수 없

는 의미를 갖는다. 비체-되기를 통하여 주인권력 및 남성지배권력을 흔들고, 여성의 몸을 매개로 지속되는 가족제도를 비추어내는 행랑어멈의 실력행사가 담보하는 여성주체성의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참고문헌 ■

- 김유정학회편, 『김유정의 문학산맥』, 소명, 2017
- 이현재, 『여성혐오 그 후, 우리가 만난 비체들』, 들녘, 2016
- 임옥희, 『젠더 감정 정치』, 여이연, 2016, 54면,
- 임옥희, 『주디스 버틀러 읽기 - 젠더의 조롱과 우울의 철학』, 여이연, 2006
- 전신재 편, 『원본 김유정 전집』, 개정증보판, 도서출판 강, 2012
- 게일 루빈, 신혜수·임옥희·조혜영 역, 『일탈 - 게일 루빈 선집』, 현실문화, 2015
- 보들리아르, 배영달 역, 『유혹에 대하여』, 백의, 1996,
- 김미현, 「승고의 탈경계성 -김유정 소설의 “아내 팔기” 모티프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238권, 2012, 193-214면
- 김경욱, 「이상 소설에 나타난 ‘斷髮’과 유혹자로서의 여성」, 『관악어문연구』, 제24호, 1999, 299-313면
- 김예리, 「김유정 문학의 웃음과 사랑 - 김유정 문학에 나타난 죽음충동과 에로스」, 김유정학회 편, 『김유정의 문학산맥』, 소명출판, 2017, 55-79면
- 박정석, 「남인도의 불가촉천민에 관하여」, 『인도연구』 제4권, 1999, 81-114면
- 배상미, 「1930년대 농촌사회와 들병이 -김유정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제51권, 2013, 454-476면
- 송주현,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사랑의 의미 연구 - 인물 관계와 서사화 과정을 중심으로」, 김유정학회 제5회 학술세미나, 『김유정과의 만남 2014 가을』, 2014
- 이경, 「자본주의보다 먼저 온 실패의 예후와 대안적 윤리」, 『코기토』, 제73호, 2013, 490-524면
- 정연희, 「김유정 소설의 실제의 윤리와 윤리의 정치화」,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0권, 2015, 515-536면
- 정현숙, 「김유정 소설과 서울」, 김유정학회 편, 『김유정과의 산책』, 소명출판, 2014, 273-296면
- 차희정, 「김유정 소설에 나타난 한탕주의 욕망의 실제 - 「소낙비」, 「금따는

- 콩밭, 『만무방』을 중심으로, 김유정학회편, 『김유정의 문학산맥』, 소명, 2017, 163-194면
- 최병우, 『김유정 소설의 다중적 시점에 관한 연구』, 『현대소설연구』, 제23호, 2004, 29-45면
- 최성윤, 『김유정 소설의 여성 인물과 ‘貞操’』,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53집, 2011, 269-285면
- 최원식, 『모더니즘 시대의 이야기꾼: 김유정의 재발견을 위하여』, 『민족문학사연구』, 제43권, 2010, 342-366면



<Abstract>

A Narrative of Temptation and Pollution —On Kim, Yoo-jung’s “Jungjo”—

Lee, Kyung

Kim Yoo-jung's short novel, “Jungjo”, deals with female-to-male trade, which is substantially spoiled by a female character. Focusing on this feature, this essay explores the subjectification process of the female character. Based on the feminist approach including Gale Rubin's concept of traffic in women and Kristeva's explanation on abject, this essay tries to analysis her behaviors of temptation, prostitution, negotiation and deal in the novel, and reveals her subjectification strategy. In this patriarchal structure, the possibility of women becoming a subject dominance is very narrow, but it may be possible to make some cracks to and in such a structure against its grain through the strategy of becoming abject. She seduced her master into sexual affair with herself, and threatened him to pay her business succession. From such a story, this essay tries to find the potential of a female character who breaks the social context of traffic in women.

First, it examines the feministic potential of the novel that tries to ques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bject and the object through the dual strategies of temptation and victimization of herself which was played by the female characters. The fact that it is the woman who decides whether she was the subject or the victim of temptation,

confirms the possibility that strong social structure that backs up traffic in women is significantly broken called in question or suspicion.

Next, it explores the strategy of dilution of the boundaries of master and servant from her planned behavior of becoming abject which resulted in the master 's damage consciousness. The resources of a female person who is able to dispose her male master toward feeling terrible fear, are not temptation or pleasure, but contagiousness of dirtiness, ugliness and inferiority which have been attributed to herself. Because the power to pollute the boundary and 'face' belongs only to her, her strategy of becoming abject has produced the most powerful resource for her to achieve her goal toward opening a public house.

Finally, it examines how the dual strategy of temptation / victimization and the strategy of becoming abject are converged into the transaction of pollution and making a travesty on the master power. It reveals the status of the female character who takes the initiative of the transaction of pollution and explains how the master power that compelled her to be an abject is ridiculed and tactically questioned. This essay tries to propose to find out some possibility of female character to question the everlasting structure of traffic in women and to make a travesty on the master power, along with existing researches which have limited female character's meaning only to metaphor of Korean nation or intermediary of exchange or trades.

Key words: Initiative of woman, Subject of temptation, Traffic in women, mobilization of pollution, becoming-abject, travesty on the master power



투 고 일 : 2017년 10월 14일 심 사 일 : 2017년 10월 20일-11월 30일
게재확정일 : 2017년 12월 15일 수정마감일 : 2017년 12월 20일